

‘실용무용’이라는 용어의 재구성

- 상업기반 예술의 감각 실천과 국제 예술 담론 -

유기원* · 김영미**

I. 들어가며

II. 선행연구와 이론적 토대

III. 사례 분석

IV.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I. 장 들어가며

명칭의 위계와 감각 구조를 넘어서

한국 무용계에서 ‘실용무용’이라는 명칭은 지난 20여 년간 교육과 정책 담론 속에서 제도적으로 정착해 왔다.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 문서에 따르면, 실용무용은 ‘예술·실용학문군’ 중 기술 중심 실기교육 분야로 분류되며, 방송댄스, 스트리트댄스, K-pop 안무 등을 포괄하는 행정적 범주로 규정되어 왔다(한국교육개발원, 2009). 이러한 제도화 과정은 청년 세대의 무용 진입 경로를 넓히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실용’과 ‘예술’이라는 이분법을 고착화하여 직업성과 예술성을 위계적으로 분리시킬 우려를 낳았다(이해준, 정시현, 2017; 정한결, 2020).

그러나 국제 무용 담론에서 ‘practical dance’라는 표현은 거의 통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commercial dance, screendance, dance for camera와 같이 매체적·산업적 맥락을 기준으로 한 용어가 사용된다(Dodds, 2001; Brannigan, 2011). 다시 말해 한국의 ‘실용무용’은 교육 행정에서 비롯된 독특한 용어이며, 국제 담론에서의 무용 개념과 직접 대응되지 않는다(강혜련, 2020; 문수현 외, 2024). 이는 행정적 기원이 예술적 위상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정책 변화는 실용무용의 제도적 위상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3년 예술활동증명을 기반으로 예술인패스를 발급하기 시작했으며, 무용 분야에서는 한국무용·발레·현대무용뿐 아니라 실용무용(방송댄스)과 스트리트댄스(street dance)도 공식 하위 장르로 인정하였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2; 2024). 더 나아가 2023년에는 예술인패스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전환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공간에서 실용무용 종사자들이 발급 경험을 공유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 경희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무용학 박사과정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교수, petal_ny@hanmail.net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 이는 과거 ‘순수’와 ‘실용’을 분리하던 담론과 달리, 실용무용이 제도권 예술인의 범주 속에서 점차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내외 흐름은 현대무용의 핵심 특성인 동시대성과 맞닿아 있다. 레페키(Lepecki, 2006)는 동시대 무용을 “지금-여기의 사회·문화적 긴장에 응답하는 수행”으로 정의하며, 무용이 단순한 기술적 장르를 넘어 시대적 감각을 재구성하는 실천임을 강조하였다. 포스터(Foster, 2011)는 무용수의 신체를 관객과 감응을 매개하는 수행 장치로 해석하며, 무용이 감각 구조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생산한다고 보았다. 또한 랑시에르(Rancière, 2004)의 “감각의 분할” 개념은 ‘실용무용’이라는 명칭이 특정 감각 질서를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위계화하는 방식과 긴밀히 연결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용무용이라는 용어가 단순한 행정적 범주를 넘어, 동시대성(contemporaneity)과 감각정치성(sensory politics)의 틀 안에서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해외의 대표적 실천과 더불어 국립현대무용단 「힙합, HIP합」(2022), 리케이댄스 「올더월스, All the Wall's」(2024) 같은 국내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실용무용 명칭이 동시대 무용 담론 속에서 어떠한 재위치화 가능성을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와 이론적 토대

1. 국내외 연구 동향

실용무용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학술지에서 축적되어 왔다. RISS와 KCI 검색 결과에 따르면 관련 논문은 200편 이상이며, 이 가운데 KCI 등재 논문만 70편에 달한다. 『무용예술학연구』, 『한국무용학회지』,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등 무용학 및 융합 학술지 전반에 걸쳐 교육 과정, 전공자의 정체성, 산업 연계, 공연 실천 등 다층적인 주제가 다루어져 왔다(이해준, 정시현, 2017; 정한결, 2020; 강혜련, 2020; 문수현 외, 2024). 이는 실용무용이 이미 교육·산업·문화 정책과 연결된 중요한 연구 주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용어가 구성하는 감각의 위계 구조나 담론적 작동 방식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을 토대로, 명칭 체계를 재검토하고 실용성과 예술성의 경계를 보다 유연하게 사유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을 재해석하기 위해 살펴본 국외 연구에서는 무용의 매체적 확장과 동시대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국외 논의들은 무용이 특정 장르의 고정된 범주를 넘어, 매체와 산업적 맥락 속에서 동시대 예술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Dodds, 2001; Brannigan, 2011; Foster, 2011; Lepecki, 2006; Kressner, 2019). 본 연구는 이 성과들을 토대로, 한국의 ‘실용무용’ 명칭을 동시대성과 감각정치성의 틀 속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연구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2. 국제적 맥락과 용어 차이

국제적으로는 ‘practical dance’라는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영어권에서는 ‘practical dance’나 ‘applied dance’라는 표현보다는 광고, 뮤직비디오, 공연 산업, 영상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무용을 주

로 commercial dance 혹은 dance for camera, dance in media와 같이 맥락과 매체 환경을 기준으로 정의한다(Dodds, 2001; Brannigan, 2011). 이는 한국에서 '실용무용'이 교육·행정 체계에서 비롯된 용어라는 점과는 차이를 보인다.

해외 학계는 무용의 매체 확장과 상업예술적 수행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해 왔다. 도즈(Dodds, 2001)는 영화와 영상 속 무용을 분석하며 매체 확장이 무용의 장르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조망하였다. 브래니건(Brannigan, 2011)은 댄스필름(dancefilm)개념을 통해 무용과 영상 매체의 융합이 새로운 예술 형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포스터(2011)는 무용수의 신체가 공감각적 수행성을 매개한다고 분석하면서 신체와 감각 구조의 상호작용이 관객의 수용 방식을 바꿀 수 있음을 밝혔다. 레페키(2006)는 현대무용을 “지금-여기의 사회적 긴장에 응답하는 수행”으로 정의하며 동시대성 개념을 제시했고, 크레스너 (Kressner, 2019)는 무라드 메르주키 (Mourad Merzouki)의 「픽셀, Pixel」(2014)을 분석하여 인간 신체와 디지털 매체가 교차하면서 새로운 감각 구조가 생성되는 과정을 탐구하였다.

이처럼 해외 연구는 무용을 단순한 기술적 실천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매체 환경 속에서 감각 구조와 정체성을 재편하는 수행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논의는 실용무용이라는 명칭을 단순 행정적 범주가 아니라, 국제 담론 속 감각적·사회적 수행으로 읽어낼 수 있는 해석적 기반을 제공한다.

3. 분석 시각과 용어 기준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국내외 담론을 토대로, 실용무용 명칭을 해석하기 위한 분석 시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실용무용은 교육부의 전문대학 교육과정 문서에서 비롯된 행정적 명칭으로, 방송댄스, 스트릿댄스, K-pop 안무 등을 포괄하는 교육 분류 체계 안에서 자리 잡았다(한국교육개발원, 2009). 그러나 본 연구는 이를 단순한 직업 훈련 범주로 한정하지 않고, 동시대적 감각 구조 속에서 예술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실천으로 이해한다.

둘째, 순수무용은 전통적으로 실용무용과 대비되며, ‘예술성’을 중심으로 한 무용을 지칭해온 용어이다(김말복, 2003). 본 연구에서는 이분법적 해석을 지양하고, 시대와 제도 속에서 형성된 용어로 이해하며 위계적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다.

셋째, 현대무용은 레페키(2006)와 포스터(2011)의 논의를 근거로, 동시대성과 탈장르성을 특징으로 하는 수행으로 파악한다. 이는 무용의 융합과 확장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이론적 축으로 활용된다.

넷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커머셜댄스(commercial dance)는 한국의 실용무용과 직접 치환되지 않으나, practical dance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응되는 개념으로 참고할 수 있다(Dodds, 2001; Brannigan, 2011).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랑시에르(2004)의 “감각의 분할” 개념을 차용하여, 명칭이 불러오는 위계감과 구도를 감각정치성(sensory politics)의 문제로 파악한다. 즉, 실용무용은 단순한 행정적 용어가 아니라, 감각의 위계와 분할 속에서 위치 지워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분석 시각은 실용무용 명칭을 현대무용의 동시대성과 연결해 재구성하는 틀을 제공하며, 이후 사례 분석의 기초가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실용무용 명칭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분석 시각을 도출하였다. 실용

무용을 둘러싼 개념은 언어적·감각적·제도적 차원에서 교차하며, 이를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표 1>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개념을 정의하고, 각각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 표를 통해 용어 재구성 논의가 단순한 언어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감각 구조와 제도적 담론을 교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표 1> 본 연구의 핵심 개념 정의

분류	개념	정의	주요 이론적 근거
1	동시대성	무용이 지금-여기의 사회적·문화적 긴장에 응답하며 시대적 감각 구조를 재구성하는 성격. 특정 장르에 고정되지 않고 변화와 혼종성을 내포한다.	(Lepecki, 2006)
2	감각정치성	명칭이나 장르 구분이 감각의 위계를 만들어내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는 과정. 무용 신체는 이러한 위계를 교란하며 새로운 질서를 생산한다.	(Rancière, 2004; Lepecki, 2006)
3	정체성 수행	무용수가 개인적·집단적 경험을 신체적으로 반복·재현하여 관객과의 감응 속에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	(Foster, 2011)
4	신체 주도성	무용 신체가 단순 기술 수행을 넘어 공연 구조와 감각 질서를 주도하며, 산업·사회 구조 속에서 위치를 재편하는 힘.	(Martin, 1998; Lepecki, 2006)
5	재위치화	주변부 장르나 명칭이 예술 담론과 제도적 환경 속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위상을 획득하는 과정.	Sadler's Wells, CND DE 제도 사례

4. 사례 선정 기준과 분석 적용 방식

본 연구는 '실용무용' 명칭을 동시대성(contemporaneity)과 감각정치성(sensory politics)의 틀에서 재구성하기 위해 국내외 대표적 사례들을 선정하여 분석한다. 사례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무용 기반 신체성이 공연의 핵심 요소로 작동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스트릿댄스(street dance), 브레이킹(breaking), 코레오그래피(choreography) 등 대중문화적 움직임이 단순한 배경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의 구조와 서사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배치된 작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둘째, 상업성과 예술성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작업을 포함한다. 상업 브랜드, 디지털 플랫폼, 대중문화와 연계되더라도 동시에 공공극장이나 예술축제, 예술지원 제도 속에서 예술적 맥락을 확보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셋째, 언어·감각·제도의 층위가 모두 드러나는 작업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다시 말해, 명칭의 위계(언어), 무대와 신체의 미학적 구성(감각), 정책과 제도적 수용(제도)이 상호 연동되는 사례를 우선적으로 다룬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 선정 과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실용무용 명칭이 무대 실천을 넘어 사회 제도 전반에서 어떻게 재위치화되는지를 입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로는 무라드 메르주키의 「픽셀, Pixel」(2014) (Compagnie Käfig, n.d.; Hohenadel, 2015; Kressner, 2019), 영국 런던의

새들러스 웰스(Sadler's Wells)의 「브레이킨 컨벤션, Breakin' Convention」(Winship, 2023; Sadler's Wells, 2022), 그리고 프랑스 무용교사 국가자격(DE) 제도 확대 사례(TF1 Info, 2024)를 선정하였다. 제도 사례를 포함한 이유는, 실용무용적 장르가 공적 교육 체계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통해 명칭의 위상 변화가 제도적으로 확인되는 방식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어서 국내 사례로는 국립현대무용단 「힙합」과 리케이댄스 「올더월즈」를 분석하여, 실용무용 명칭이 감각적 수행과 제도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III. 사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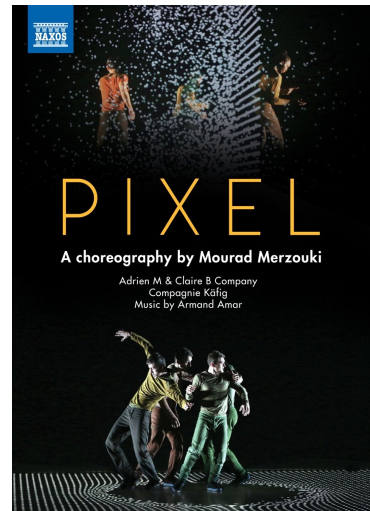
1. 무라드 메르주키 「픽셀, Pixel」(2014) 스트리트댄스의 감각적 재위치화

「픽셀」(2014)은 프랑스 안무가 무라드 메르주키가 디지털 아티스트 그룹 Adrien M & Claire B와 협업하여 제작한 작품으로, 스트리트댄스와 브레이킹을 기반으로 한 신체가 실시간 디지털 프로젝션과 결합하는 공연이다.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컴퓨터 그래픽과 즉각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무대 전체가 몰입적 시각 공간으로 변모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Hohenadel, 2015; WIRED UK, 2015).

첫째, 언어적 차원에서 「픽셀」은 스트리트댄스와 브레이킹이라는 장르 명칭이 공연예술 담론 속에서 새롭게 재위치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예컨대 새들러스 웰스는 「픽셀」을 소개하며, 스트리트댄스를 정식 예술제 프로그램의 일부로 규정하였다(Sadler's Wells, 2016). 르 몽드(Le Monde, 2015) 또한 “메르주키는 환상을 춤추게 했다(Merzouki fait danser l'illusion)”라고 평가하며, 스트리트댄스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예술 어휘로 작동함을 강조하였다(Le Monde, 2015)

둘째, 감각적 차원에서 「픽셀」은 신체와 기술이 생산하는 새로운 미학적 구성을 제시한다. 크레스너(2019)는 「픽셀」을 분석하면서 “인간의 신체와 비물질적 투사(human bodies and immaterial projections)”가 공존하는 감각 구조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스트리트댄스와 브레이킹이 단순한 신체 동작의 반복이 아니라 감각적 지각의 재편을 이끌어내는 동시대적 실천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제도적 차원에서 「픽셀」은 스트리트댄스가 국제 극장의 무대와 주요 예술제의 정식 프로그램으로 포함되는 과정을 뒷받침한다. 이 작품은 리옹 무용 비엔날레 개막작으로 초청되었으며, 이후 영국의 새들러스 웰스(Sadler's Wells), 프랑스의 샤요 국립극장(Théâtre de Chaillot) 등 유럽 주요 극장에서



〈그림 1〉 무라드 메르주키 「픽셀」 공연 포스터 (2014)¹⁾

1) Compagnie Käfig(2014). “Pixel - Production 2014 (M. Merzouki)”. Compagnie Käfig. <<https://kafig.com/Pixel-1975927?lang=fr>, 2025. 09. 12>.

상연되었다. 와이어드 영국판(WIRED UK, 2015)은 이를 “디지털 시대 공연예술의 혁신(a revolution in performing arts for the digital era)”라고 평가했고, 슬레이트(Slate, 2014)는 「픽셀」을 “라이브 댄서와 프로젝션이 융합된 전례 없는 공연(an unprecedented performance combining live dancers and projections)”으로 소개했다. 나아가 유네스코(UNESCO, 2020)가 브레이킹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사실은 스트리트댄스가 국제 문화 제도 속에서 더 이상 주변적이지 않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픽셀」은 우리나라에서 ‘실용무용’으로 분류되는 스트리트댄스와 브레이킹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감각 구조를 형성하고, 국제 공연예술 제도 안에서 수용되며 명칭의 위계가 재편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실용무용이 단순한 상업적 실천을 넘어 동시대 예술 담론 속에서 수행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새들러스 웰스 「브레이킨 컨벤션, Breakin’ Convention」 : 거리문화의 극장 진입

영국 런던 새들러스 웰스 극장이 2004년부터 주최해 온 브레이킨 컨벤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힙합 무용 축제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 축제는 단 순한 공연 기획을 넘어, 스트리트 기반 무용을 공연예술의 제도적 무대에 올려놓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Guardian, 2022; Sadler’s Wells, 2024).

첫째, 언어적 차원에서 브레이킨 컨벤션은 ‘힙합(hip-hop dance)’이라는 용어가 공연예술 담론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를 보여준다. 새들러스 웰스는 공식 보도자료에서 이 축제를 “힙합 댄스 시어터의 축제(celebration of hip-hop dance theatre)”로 규정하며, 기존 대중문화의 용어였던 힙합이 ‘dance theatre’라는 공연예술 언어와 결합해 서술되는 과정을 드러냈다(Sadler’s Wells, 2024). 이는 실용무용이라는 명칭이 행정적 분류에서 형성한 위계 구조와 달리, 국제 담론에서는 맥락적·예술적 용어 재구성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감각적 차원에서 이 축제는 힙합 특유의 즉흥성·배틀 구조·신체 언어를 극장적 미장센 속에 재배치하며 새로운 수용 방식을 만들어냈다. 타임아웃 런던(Time Out London, 2023)은 “극장과 사이퍼의 만남(theatre meets cypher³⁾”라는 표현으로, 거리의 즉흥적 감각이 극장 무대에 이식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관객은 단순히 쇼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와 객석 사이의 긴밀한 호흡을 경험하게 된다.



〈그림 2〉 Sadler’s Wells
〈Breakin’ Convention 2025〉 공식 포스터²⁾

2) Sadler’s Wells(2025, May). “Breakin’ Convention 2025 - Official Poster”. *Sadler’s Wells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breakinconvention>, 2025. 09. 12>.

3) 사이퍼(cypher)는 힙합 문화에서 비롯된 수행 형식으로, 참여자들이 원(circle)을 이루어 서서 차례로 즉흥 춤이나 랩을 선보이며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스트리트댄스에서는 무용수들이 순서대로 중앙에서 춤을 추고, 주변 참여자들이 호흡과 리듬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실용무용 기반 신체가 공공극장의 감각 구조 안에서 재맥락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셋째, 제도적 차원에서 브레이크 댄스 컨벤션은 새들러스 웰스라는 예술 기관이 매년 예산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더 스테이지(The Stage, 2019)는 이 축제를 “새들러스 웰스 최장수 축제(Sadler’s Wells’ longest-running festival)”로 지칭하며, 제도적 차원에서 힙합 무용이 더 이상 주변적 장르가 아니라 공공 지원 체계의 일부로 편입되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창립자 Jonzi D는 인터뷰에서 “힙합은 단지 길거리의 춤이 아니라, 오늘날 공연예술의 언어다”라고 밝히며(DC Theater Arts, 2021), 힙합 무용이 예술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지닌 수행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브레이크 댄스 컨벤션은 언어·감각·제도의 차원에서 스트리트댄스가 공연예술 제도로 포섭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실용무용이라는 명칭과 비교했을 때, ‘힙합’이 축제·극장·국제 담론을 통해 제도화된 공연예술 언어로 정착한 흐름은, 한국 무용계에서 실용무용 명칭을 재검토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3. 프랑스 무용교사 국가자격(DE) 제도 확대 : 정책과 정체성

프랑스 문화부는 2024년 기존 클래식·컨템포러리·재즈 중심의 무용교사 국가자격(Diplôme d’État, DE)을 스트리트댄스(힙합, 브레이크 댄스 등)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였다(TF1 Info, 2024). 이는 거리춤을 단순한 비공식적 문화나 대중적 장르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교육·훈련 체계에 포함되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프랑스 국립무용센터(CND)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스트리트댄스 아카이브 구축,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거리춤의 제도적 수용을 본격화했다(Courrier International, 2024).

첫째, 언어적 차원에서 ‘힙합’ ‘브레이크 댄스’이라는 명칭이 교육제도 공식 문서에 삽입되며, 용어 자체가 지닌 위상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스트리트댄스가 비공식적 현장 용어로 남아 있었다면, 이제는 교육·행정적 범주 속에 등록되어, 제도적 차원의 ‘공식 언어’로 작동하게 된 것이다.

둘째, 감각적 차원에서 이는 거리 현장의 움직임이 교실·교육훈련의 장으로 전환되면서, 신체 감각의 배분이 달라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즉흥성과 집단성이 강조되던 움직임이 교육과정 안에서 분석·훈련·재현의 방식으로 재구조화되며, 새로운 감각 정치성을 드러낸다. 이는 거리 춤의 예술적 위상을 제도 안에서 재배치하는 정치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Rancière, 2004).

셋째, 제도적 차원에서 이번 법안은 스트리트댄스 종사자들에게 공식 교원 자격 취득 경로를 제공하는 점에서 결정적이다. TF1 인포(TF1 Info, 2024)는 “힙합 댄스가 콘서바토리에 진입하다(hip-hop dance enters conservatoires)”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하며, 스트리트댄스가 더 이상 주변적 위치가 아닌 공교육 체계 안의 직업 예술로 인정받는 과정을 강조했다. 이는 프랑스 사회에서 스트리트댄스가 단순히 무대 공연을 넘어, 제도와 정책이 보증하는 교육 예술로서 지속 가능성을 획득한 계기로 평가된다.

따라서 프랑스 DE 제도의 확대는 스트리트댄스가 국제적으로 정책과 제도적 수용의 언어로 편입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는 한국에서 실용무용 명칭을 재검토하는 데 중요한 비교점을 제공한다. 즉, 한국의 실용무용 담론 역시 단순히 ‘상업성/비예술성’의 틀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제도적 수용 가능성과 교육 체계 편입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국립현대무용단 「힙합, HIP습」(2022)

「힙합」은 국립현대무용단이 처음으로 스트리트댄서를 공식 무대에 초청해 제작한 공연으로, 공공 예술기관이 장르 융합을 제도적으로 실험한 대표 사례다.

첫째, 언어적 차원에서 「힙합」은 제목부터 ‘힙(HIP)’과 ‘합(合)’을 결합해 새로운 담론적 명칭을 창안했다. 이는 힙합을 단순 장르명이 아니라 현대적 감각을 상징하는 ‘힙합’으로 호명하며, 국립 단체가 이를 공연 타이틀에 직접 사용한 사례다(국립현대무용단, 2022). 이 명칭은 실용무용/스트리트댄스를 제도 담론 속에 위치시키는 언어적 전환으로 바라볼 수 있다.

둘째, 감각적 차원에서 본 공연은 현대무용 안무가와 스트리트댄서가 함께 참여하여 움직임 어휘를 공유하고 확장했다. 룬보드, 카혼 등 거리문화적 오브제가 무대 위에 배치되며, 힙합 특유의 바운스와 현대무용의 추상성이 교차하는 새로운 미학적 구성이 구현되었다(국립현대무용단, 2022).

셋째, 제도적 차원에서 국립현대무용단이 스트리트기반 작업을 정식 레퍼토리로 편입한 것은 결정적이다. 공연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초연된 뒤 지방 순회까지 이어지며 국공립 지원 망 안에서 지속되었다(국립현대무용단, 2022). 이는 실용무용적 실천이 국가 레벨의 공연예술 제도 속에 공식적으로 수용된 사례로, 공공 예술기관이 장르 융합을 제도화한 대표적 전환점이 되었다.

「힙합」은 국립무용단이 스트리트댄스를 단순히 초청한 차원이 아니라, 국립 레퍼토리 체계가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는 사건이었다. ‘HIP’이라는 명칭은 실용무용이라는 행정적 범주가 갖는 기능 중심 이미지를 넘어, 공연예술 담론 속에서 힙합/스트리트댄스가 동등한 예술어휘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실용무용 명칭이 더 이상 “교육제도 내부의 편의적 구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공연 언어로서의 재위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한다.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2022.7.6 WED - 7.10 SUN
입장 7:30PM 9PM 7:30PM 9PM

이재영 메커니즘
정철인 비보호
지경민 파도

**힙한 안무가 세 명이 펼쳐내는 ‘HIP’의 재정의
현대무용으로 파고드는 힙합 정신**

국립현대무용단의 장르 간 협업 프로젝트 〈HIP습〉이
올리는 힙합 정신을 파고드는 작품으로 깊이와 재미를 더한다.
동시대를 살아가며 왕성한 창작기량을 선보이는 젊은 안무가
이재영, 정철인, 지경민
각자가 탐구한 ‘힙’, 그 본질을 찾아 무대 위에 풀어낸다.

〈그림 3〉 〈HIP습〉 공연 사진
(안무: 이재영·정철인·지경민, 2022)4)

4) 국립현대무용단(2022, July). “HIP습 공연 사진”. 국립현대무용단 공식 웹사이트. <<https://kncdc.kr/ko/performance/detail?boardMasterSeq=1&boardSeq=1537&pgm=info>, 2025. 09. 12>.

5. 리케이댄스 「올더월즈」(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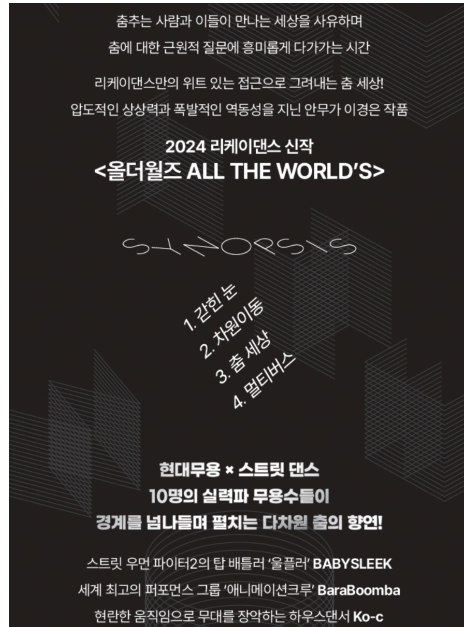
이경은 안무가가 이끄는 리케이댄스는 세계적 스트리트댄서와 현대무용수가 함께 무대에 선 「올더월즈」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 실용무용과 현대무용을 접목한 창작을 선보였다(서울문화재단, 2024).

첫째, 언어적 차원에서 작품 제목은 셰익스피어의 구절을 차용하되 ‘모든 세계들(All the World’s)’로 변주하여, 현실과 상상, 현대무용과 스트리트댄스가 공존하는 무대로 호명했다(리케이댄스, 2024; 서울문화재단). 이는 스트리트댄스를 단순 기능적 춤이 아니라 ‘세계’와 대등한 예술 언어로 호명한 시도로 해석된다.

둘째, 감각적 차원에서 무대 위의 벽을 부수고 넘는 장면은 사회적·개인적 장벽을 상징했고, 팝핑·왁킹·브레이크링과 현대무용이 교차하는 움직임은 “경계 허물기”라는 주제를 형식 차원에서 구현했다. 관객들은 “현대무용을 처음 봤는데 이해하기 쉬웠다”는 반응을 보여, 감각 구조의 민주화를 이끌어냈다.

셋째, 제도적 차원에서 이 작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지원금을 받아 제작되었고, 서울예술상 무용부문 최우수상까지 수상했다. 나아가 재공연 및 전국 순회가 확정되며 민간 단체 차원에서도 스트리트댄스와 현대무용의 융합이 제도적 성과를 획득한 사례로 자리매김했다(서울문화재단, 2024).

이처럼 「올더월즈」는 민간 단체가 스트리트댄스를 세계적 예술 언어와 접목시켜 공공지원·비평·수상 제도까지 돌파한 사례다. 이로써 실용무용은 ‘보조적 춤’이 아니라 창작 서사의 주도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나아가 이 과정은 한국 무용계에서 실용무용 명칭을 재검토하는 것은 단순히 용어 문제를 넘어, 예술성과 제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 리케이댄스 〈올더월즈〉
홍보 브로셔 (2024)⁵⁾

IV. 나가는 말:

‘실용무용’ 명칭의 재구성과 동시대 예술 담론

본 연구는 ‘실용무용’이라는 명칭이 구성하는 감각적 위계와 제도적 고차 구조에 주목하여, 이 실천이 동시대 무용 담론 속에서 어떻게 예술적으로 재위치화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오늘날 무용은 디지털 플랫폼, 브랜드 협업, 공공 공간 등 다층적 매체 환경 속에서 감정과 정체성, 도시성과 공동체성을 발화하는 감각 실천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실용무용으로 분류되는 움직임 실천들이 점차

5) 리케이댄스(2024, May). All the World's. [공연 홍보 브로슈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Dodds, 2001; Brannigan, 2011).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실용무용 전공자들은 예술가로서의 감각과 창작 역량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예술성의 정당화를 요구받는 위치에 놓인다. 동시에 현대무용 역시 제도 안에서의 생존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무용교육 및 작품 창작에서 디지털/미디어 융합 실천에 대한 수용 또한 아직 제도적으로 제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해원, 2024; 김솔이·차수정, 2017).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실용무용이 예외적 장르가 아니라, 현대무용과 마찬가지로 동시대 예술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음을 감각 정치학의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특히 레페키(2006)의 ‘동시대성(contemporaneity)’ 개념은 무용을 고정된 형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금-여기의 감각 질서를 재배열하는 수행으로 바라봄으로써, 실용무용 역시 동시대 예술 담론 속에서 새롭게 사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Rancière(2004)의 감각정치성은 명칭 구조가 감각의 위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분할하는지를 드러내며, 포스터(2011)가 말한 정체성 수행 개념은 무용수의 반복적 수행이 관객과의 감응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었다. 또한 Martin(1998)의 신체 주도성은 무용 신체가 공연장·축제·교육 구조를 능동적으로 재편하는 힘을 보여주는 분석 틀로 작동했다. 마지막으로 재위치화 개념은 주변부 장르가 공연·교육·정책의 중심 언어로 이동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층위에서 실용무용의 재위치화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첫째, 무라드 메르주키의 「픽셀」은 브레이킹 기반 신체성을 디지털 이미지와 결합하여 조형적 감각 실천으로 전환하였으며, 실용무용 신체가 감정 표현과 시청각 서사 구성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WIRED UK, 2015; Kressner, 2019). 이는 동시대성의 틀에서 실용무용 신체가 시대적 감각과 기술 환경에 응답하는 수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둘째, 새들리스 웰스의 브레이크 컨벤션은 스트리트댄스의 감각을 극장 시스템 안으로 재배치하며, ‘힙합 시어터(hip hop theatre)’라는 명명 아래 감각정치성의 구조를 새롭게 분할하였다(The Guardian, 2022; Winship, 2023). 동시에 신체 주도성이 극장의 운영 논리와 축제 플랫폼의 구조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Martin, 1998). 셋째, 프랑스 국립무용센터(CND)의 스트리트댄스 레지던시와 DE 제도 확대는 거리 기반 움직임의 제도 내 창작 주체이자 교육 체계의 일부로 공인하며, 재위치화의 과정을 정책 언어 차원에서 실현하였다(TF1 Info, 2024).

국내 사례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국립현대무용단 「힙합」은 스트리트댄서를 국립 레퍼토리 체계 안으로 초청하여 협업하였으며, ‘롱보드·카혼’ 등의 오브제를 매개로 감각정치성의 전환을 무대화하였다(국립현대무용단, 2022). 이 과정에서 현대무용수와 스트리트댄서가 반복적으로 수행을 공유하고 확장하며, 정체성 수행의 관점에서 협력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가능성을 드러냈다. 리케이댄스 「올더월즈」는 ‘벽’ 오브제를 매개로 경계 허물기를 장면화하고, 스트리트 기반 신체를 서사의 주도 언어로 사용함으로써 감각 구조의 민주화를 실현하였다. 수상과 재공연·전국 순회로 이어진 제도적 성과는, 실용무용적 움직임이 민간 창작 생태계에서도 재위치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 차원의 변화는 이러한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3년부터 실용무용(방송댄스)과 스트리트댄스를 예술활동 증명의 하위 장르로 포함하였고, 2023년에는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전환하였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2; 2023). 아울러 경연 입상보다 공연 출연·안

무 실적을 중심으로 한 심의 구조는 실용무용적 활동을 예술적 수행으로 인정하는 감각 질서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는 공연 현장에서 나타난 언어·감각·제도의 전환이 정책 차원에서 제도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실용무용’이라는 명칭은 감각 기반 실천의 복합성과 예술적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동시대 신체 실천’이나 ‘상업예술 기반 무용’ 등 맥락 중심 명칭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용무용 기반 공연이 공공극장 편성, 예술 지원금 심의 항목 등에서 장르 명칭에 따른 불리함을 겪지 않도록, 창작 방식과 감각 구성 중심의 평가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 셋째, 교육과정 또한 기능 중심 훈련을 넘어, 감각과 융합을 기반으로 한 창작 중심 커리큘럼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픽셀」의 사례는 ‘무용×미디어’ 융합 과목, 브레이킨 컨벤션은 공동체적 감각 교육, 프랑스 DE 제도는 교원 양성 체계 구축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힙합/스트릿댄스: (행정 분류상 실용무용)은 동시대성의 틀에서 지금-여기의 긴장에 응답하며(Lepecki, 2006), 감각정치성을 재편하고(Rancière, 2004), 정체성 수행을 통해 협력적 주체를 형성하며(Foster, 2011), 신체 주도성을 발휘하여 제도와 플랫폼의 구조를 재편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Martin, 1998). 동시에 해외(「픽셀」, 브레이킨 컨벤션, 프랑스 DE)와 국내(「힙합」, 「올더월즈」, 예술인패스) 사례는 재위치화가 미학-제도-정책의 교차 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는 ‘실용무용’ 명칭의 재구성을 단순한 언어 교정이 아니라, 언어·감각·제도를 관통하는 전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향후 연구는 국제 담론과 국내 제도를 상호 번역하는 언어를 마련하고, 현장 데이터와 제도 문서를 바탕으로 그 효과와 한계를 함께 점검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말복(2003). *무용 예술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Banet-Weiser, S.(2012). *Authentic™: The Politics of Ambivalence in a Brand Culture*. NYU Press.
- Brannigan, E.(2011). *Dancefilm: Choreography and the Moving Image*. Oxford University Press.
- Crary, J.(2001). *Suspensions of Perception: Attention, Spectacle, and Modern Culture*. MIT Press.
- Dodds, S.(2001). *Dance on Screen: Genres and Media from Hollywood to Experimental Art*. Palgrave Macmillan.
- Foster, S. L.(2011). *Choreographing Empathy: Kinesthesia in Performance*. Routledge.
- Kressner, I.(2019). *Bodies, Transparent Matter, and Immateriality: Compagnie Käfig's eco-dance performances*. In *Ecofictions, Ecorealities, and Slow Violence in Latin America and the Latinx World* (pp. 239-259). Routledge.
- Lepecki, A.(2006). *Exhausting Dance: Performance and the Politics of Movement*. Routledge.
- Lepecki, A.(2012). *Dance and the Politics of Movement*. Routledge.
- Rancière, J.(2004). *The Politics of Aesthetics: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Continuum.
- Risner, D.(2009). *What We Know About Boys Who Dance*. VDM.
- 강혜련(2020). 국내 실용무용학과 현황분석을 통한 한류 문화 패러다임. *한국무용학회지*, 20(3), 105-117. <<https://doi.org/10.26743/kaod.2020.20.3.009>>
- 김솔이, 차수정(2017).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융복합 무용 작품분석.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2(2), 92-103.
- 문수현, 박혜진, 김영미(2024). 무용 교육 정책 변화와 실용무용 명칭의 제도적 위상. *무용예술학연구*, 83(2), 101-124. <<https://doi.org/10.16877/kjds.94.1.202403.95>>.
- 이시현, 안병순(2023). 한국적 소재를 활용한 융복합 K-실용무용 사례분석을 통한 실용무용의 활성화 방안. *한국무용학회지*, 23(3), 103-116. <<https://doi.org/10.26743/kaod.2023.23.3.009>>.
- 이해원(2024).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용교육의 실천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94(1), 143-152. <<https://journal.kci.go.kr/krsds/archive/articlePdf?artiId=ART003065398>>.
- 이해준, 정시현(2017). 한국 실용무용의 역사성과 효용성 고찰을 통한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한국무용학회지*, 17(1), 77-90. <<https://doi.org/10.26743/KAOD.2017.17.1.008>>.
- 정한결(2020). 실용무용교육의 재개념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무용학회지*, 20(2), 69-82. <<https://doi.org/10.26743/kaod.2020.20.2.006>>.
- 유가원, 김영미(2025). 브랜드 협업을 통한 현대무용의 확장: Apple과 Adidas Y-3의 사례 연구. *한국무용학회지*, 25(2), 81-98. <<http://dx.doi.org/10.26743/kaod.2025.25.2.007>>.
- 국립현대무용단(2022, July 6-10). "HIP합 공연 사진". *국립현대무용단 공식 웹사이트*. <<https://kncdc.kr/ko/performance/detail?boardMasterSeq=1&boardSeq=1537&pgm=info>, 2025. 09. 12>.
- 서울문화재단(2024). "대학로극장 쿼드서울예술상 관련(리케이댄스 「올더월즈」)". *서울문화재단 공식 웹사이트*.

- 이트. <<https://www.sfac.or.kr/info/press.do?cbIdx=966&bcIdx=136368>, 2025. 09. 12>.
- 서울문화재단(2025. 07. 04). “대학로극장 퀴드 ‘재연을 부탁해’ 최종 선정작 발표(리케이댄스 「올더 윌즈」 포함)”. 서울문화재단 공식 웹사이트. <<https://www.sfac.or.kr/info/press.do?bcIdx=136790&cbIdx=966>, 2025. 09. 12>.
-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3a). “예술인패스 제도 개선 안내(유효기간 무기한/발급요건 완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식 웹사이트. <<https://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8372>, 2024. 9. 12>.
- 예술경영지원센터(KOPIS). “DB검색 > 공연상세 (PF238664)”. KOPIS 공연예술통합전산망. <https://kopis.or.kr/por/db/pblprfr/pblprfrView.do?menuId=MNU_00020&mt20Id=PF238664, 2025. 09. 12>.
- Compagnie KÄFIG(n.d.). “Pixel — 2014 Production.” *Compagnie KÄFIG*. <<https://kafig.com/Pixel-1975927>, 2025. 09. 12>.
- DC Theater Arts(2021, May 24). “Studio Theatre’s ‘Flow’ feels like a hip-hop feast for the senses.” *DC Theater Arts*. <<https://dctheaterarts.org/2021/05/24/studio-theatres-flow-feels-like-a-hip-hop-feast-for-the-senses/>, 2025. 09. 12>.
- Hohenadel, Colossal(2015, January 2). “Pixel: A Mesmerizing Dance Performance Incorporating Digital Projection.” *Colossal*. <<https://www.thiscolossal.com/2015/01/pixel-a-mesmerizing-dance-performance-incorporating-digital-projection/>, 2025. 09. 12>.
- Le Monde(2015, February 16). “Mourad Merzouki, le hip-hop 2.0.” *Le Monde – Projets d’avenir*. <https://www.lemonde.fr/projets-d-avenir/article/2015/02/16/mourad-merzouki-le-hip-hop-2-0_4577163_4570787.html, 2025. 09. 12>.
- Le Monde(2014, November 14). “Merzouki, avis de tempête.” *Le Monde – M le mag*. <https://www.lemonde.fr/m-le-mag/article/2014/11/14/merzouki-avis-de-tempete_4522900_4500055.html, 2025. 09. 12>.
- My Melbourne Arts(2016, September 3). “Pixel review.” *My Melbourne Arts*. <<https://www.mymelbournarts.com/2016/09/pixel-review.html>, 2025. 09. 12>.
- Sadler’s Wells(2022). “Breakin’ Convention 2022 – International Festival of Hip Hop Dance Theatre.” *Sadler’s Wells*. <<https://www.sadlerswells.com/whats-on/breakin-convention-2022-international-festival-of-hip-hop-dance-theatre/>, 2025. 09. 12>.
- Sadler’s Wells(2024). Breakin’ Convention: A Celebration of Hip Hop Dance Theatre. *Sadler’s Wells*. <<https://www.sadlerswells.com/whats-on/breakin-convention-2024-international-festival-of-hip-hop-dance-theatre>, 2025. 09. 12>.
- TF1 Info(2024, March 8). “«Non au diplôme d’État» : hip-hop, dancehall… quelle est cette polémique ?” *fresh.buzz*. <<https://fresh.buzz/fr/society/non-au-diplome-detat-hip-hop-dancehall-quelle-est-cette-polemique-qui-agite-le-milieu-la-danse>, 2025. 09. 12>.

- The Guardian(2024, April 23). “We have to have graffiti!’ How we made the Breakin’ Convention hip-hop dance festival.”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culture/2024/apr/23/graffiti-breakin-convention-hip-hop-dance-festival>, 2025. 09. 12>.
- The Morning Standard(2023, December 8). “Important that video should be in service of the dance: Mourad Merzouki.” *The New Indian Express*. <<https://www.newindianexpress.com/cities/delhi/2023/dec/08/important-that-video-should-be-in-service-of-the-dance-choreographer-mourad-merzouki-2639588.html>, 2025. 09. 12>.
- The Stage(2024, May 8). “Breakin’ Convention 2024 review at Sadler’s Wells, London”. *The Stage*. <<https://www.thestage.co.uk/reviews/breakin-convention-2024-review-sadlers-wells-london-michelle-norton-jinjo-crew>, 2025. 09. 12>.
- The Stage(2023, May 2). “Breakin’ Convention Festival 2023 at Sadler’s Wells, London review”. *The Stage*. <<https://www.thestage.co.uk/reviews/breakin-convention-festival-2023-at-sadlers-wells-london-review>, 2025. 09. 12>.
- Time Out London(2023, May 1). “Breakin’ Convention at Sadler’s Wells.” *Time Out London*. <<https://www.timeout.com/london/dance/breakin-convention-1>, 2025. 09. 12>.
- WIRED UK(2015, February 18). “Air sketchers’ create 3D effects with 2D projections.” *WIRED UK*. <<https://www.wired.co.uk/article/pixel-performers>, 2025. 09. 12>.
- 한국교육개발원(2009). 2009 학과(전공)분류 자료집(SM2009-08). [연구보고서].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 2024. 09. 12>.
- 한국교육개발원(2014). 2024년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CSM2024-18). [연구보고서].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 2024. 09. 12>.
- 국립현대무용단(2022). 「HIP습」. [프로그램북].
- 리케이댄스(2024). 「올더월즈 All the World’s」. [홍보 브로셔].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2년 문화예술정책백서(합본). [백서]. <https://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DataCD=0406000000&pSeq=1917, 2024. 09. 12>.
-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2). 202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연구보고서]. <https://www.kawf.kr/files/report_2022.pdf, 2024. 09. 12>.
-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3). 202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연구보고서]. <https://www.kawf.kr/files/report_2023.pdf?utm_source=chatgpt.com, 2024. 09. 12>.
-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4). 2024 예술인복지 위원회 정책포럼 최종자료집. [연구보고서]. <<https://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8813>, 2024. 09. 12>.

논문투고일 2025. 07. 22.

심사일 2025. 08. 21.

심사완료일 2025. 09. 22.

www.kci.go.kr

Reframing the Term ‘Practical Dance’

– Sensory Practices and Global Artistic Contexts –

Yoo, Gawon* · Kim, Youngmi**

Ph.D. Candidate, Kyunghee University* ·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ve label “practical dance” organizes sensory practice and genre boundaries, often obscuring artistic potentials. Building on André Lepecki’s notion of contemporaneity, it reframes practical dance as a fluid, context-dependent practice that traverses commercial and artistic circuits and aligns conceptually with global usages such as commercial dance. Using document analysis and three cases—Mourad Merzouki’s Pixel, Sadler’s Wells’ Breakin’ Convention, and the street-dance residency at France’s Centre national de la danse (CND)—the study shows how street- and industry-facing vocabularies merge with contemporary dance aesthetics and platforms. Findings indicate that inclusive naming, curriculum design, and welfare/eligibility policies can mitigate residual hierarchies, acknowledge labor conditions, and better reflect where dance is produced and circulated. The paper proposes a policy and vocabulary shift situating “practical dance” within a wider contemporary ecosystem of media, education, and public institutions.

Keywords: Contemporary Dance(현대무용), Practical Dance(실용무용), Street Dance(스트릿 댄스), Contemporaneity(동시대성), Dance Genre(무용장르)